

‘점수따기’식 독서교육은 오히려 성장 장애

인성과 지·덕·체 균형 갖춘 독서교육 필요

이승복 | 서울 영남중학교 교사



독서는 단순한
책읽기가 아니라
청소년이 폭넓은
세계관을 갖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의 독서교육은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간접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보다 시험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추출하는 요령만 습득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대형 서점의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논술 학습서 적들. 많은 책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독서열에 자부심마저 느껴진다. 그러나 진열된 책의 제목을 살펴보면 이런 기대는 곧 실망과 우려로 바뀐다. ‘정선’, ‘핵심’이란 이름 아래 출판사에서 가려 뽑은 고전이나 논설문들은 친절하게 요약까지 돼 수험생들이 바쁜 일과 속에서 문학의 진수를 맛볼 수 있게 하겠다. 수험생들은 이런 책들을 어떤 기준으로 고를 것인가 어떤 책이 논술성적을 올리는 데 더 효과가 있겠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읽고 싶을 때 책 읽게

초·중·고등학교 보통교육의 목적은 기본 지식과 능력, 그리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풍토는 단순 지식을 축적하는 입시교육에 치우쳐 있다. ‘점수 따기’가 최우선이었으므로 학교·학부모·학생 모두 인성교육에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제는 입시제도의 변화와 새교육 운동의 제창을 통해서 교육을 제자리에 놓자고 한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독서는 공부에 방해가 되니 대학가서 하라’는 생각에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아직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평균 독서량은 줄어들고 있다. (김재윤, ‘학

생 독서 실태와 독서환경’, 《교육월보》, 교육부, 1996. 10.)

독서는 단순히 책읽기가 아니라 간접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폭넓은 세계관을 갖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시험에서 ‘점수 따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글을 읽고 싶을 때 읽고, 읽기 싫으면 잠시 멈춰 상상도 해 보고, 저자의 주장을 자신의 사적 경험으로 비판도 해보아야 한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뤄지는 독서교육과 논술교육을 위한 책읽기의 양상은 어떠한가.

중·고등학교마다 윤독도서를 선정하거나 국어시험에 문제를 출제해 책읽기를 독려하고 있다. 윤독도서의 경우 책을 읽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책 권수를 맞춰 다음 반으로 넘겨주는 것에 더 관심 갖는 경우가 많다. 또, 윤독도서로 선정한 책조차도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리고 국어 교과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 독서감상문을 쓰거나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보편적인데, 이것 역시 학생들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간접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기보다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추출하는 요령만 습득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즉 교과서 이외의 다양한 글들을 폭넓게 읽기보다 수학이나 과학 문제를 풀듯 짧은 글을 조각조각 분해해 구조를 짜맞추는 분석 능력

만을 키우는 경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란 책을 통해 다양한 체험과 지식을 쌓는 학습활동 자체다. 그리고 학생들 스스로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은 갈수록 오락물을 선호하고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학교교육은 분명히 청소년의 지적 능력 향상과 올바른 품성의 함양, 신체 발달이라는 지·덕·체의 균형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독서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 속에서 교과서가 모든 지식의 내용을 취급할 수도 없는 형편임을 감안하면 다양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책읽기야말로 매우 중요한 교육의 내용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마음에 위안을 주는 독서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독서습관을 갖는 것은 평생교육의 연장선상에서도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입시나 ‘점수 따기’의 한 영역으로 단순 지식의 양적 확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독서교육은 청소년의 인성교육이나 균형적인 성장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색하며 마음을 다듬고 위안이 될 수 있는 독서교육에 대한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필요하다. ●